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FRIDAY, October 17 2025 Vol. 981



‘2025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위한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가 10월 9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다시 무릎 끓어야 할 때”

2025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오는 11월 2일 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서 개최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릴,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앞두고 지난 10월 9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2층 기도센터에서 중보기도팀 및 은혜한인교회 봉사자 약 250명이 함께 모여 미국과 한국의 회개와 부흥, 다민족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의 1부 예배 및 기자 설명회가 송종호 목사(은혜한인교회)

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문수 목사(OC목사회 회장)의 개회 기도후, 공동대회장 신승훈 목사(주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미국”(왕상 12: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미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나라였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바다를 건너와 세운 나라이다. 배가 침몰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왔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먼저 세웠다. 움막에서 살면서, 교회를

짓고 마지막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과 다양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1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며, 약자와 여성을 보호하는 등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 제도들, 자선과 구호활동 등 기독교 윤리의 실천 및 전 세계 선교사 파송 등을 미국의 특성으로 열거했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WEBRIDGE

We Bridge 사역 감사예배

미주 기독일보는 4년전 첫 모임으로 시작된 제 1회 위 브릿지 사역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4년간 귀한 동역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눈물과 헌신으로 이어온 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2

기 위 브릿지 교회 사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베어온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나눔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등록: <https://forms.gle/QgCGp-ck7ctDd5pJX9>

美 객 힙스 목사 “손현보 목사와 한국교회 위해 기도”

캘리포니아 치노힐스 갈보리교회 객 힙스(Jack Hibbs) 목사와 교인들이 한국의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최근 이 교회 예배 영상에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종교 자유 침해 상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객 힙스 목사는 “손현보 목사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며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조롱과 모욕, 실직, 심지어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공산주의가 한국 사회 안에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힙스 목사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세대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안락한 신앙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잭 힙스 목사. ©치노힐스 갈보리교회

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 장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한국에서 부당하게 감금된 우리 형제들과 협박과 폭력으로 침묵당한 목회자들이 속히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고 기도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철책이 주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 땅에도, 중국에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소서. 모든 정부가 하나님

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중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미국 사회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사회주의로 기울었고, 일부 공화당원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전 세계의 자유도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교회를 깨워 주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라며 기도를 마쳤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HIBBS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한 법률상식
마동화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화 변호사그룹 | 전화상담 예약
www.marhaw.com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클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baeksong.kr

2025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A church where miracles are real
LA백송교회 Lily Pine International Church
Spirituality Festival
찬양과 말씀의 향연

Praise
기쁨부으심이 넘치는
이순희찬양콘서트
Victoria Lee Praise Concert
10/25/2025 (SAT) 3:00 PM

기성식 목사
Pastor . Daniel Kim
10/26/2025 (SUN) - 11/5 (WED) 7:30 PM

성령컨퍼런스
20th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0/26/2025 (SUN) - 11/5 (WED) 7:30 PM

백송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Pastor .Victoria Lee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Pastor . Daniel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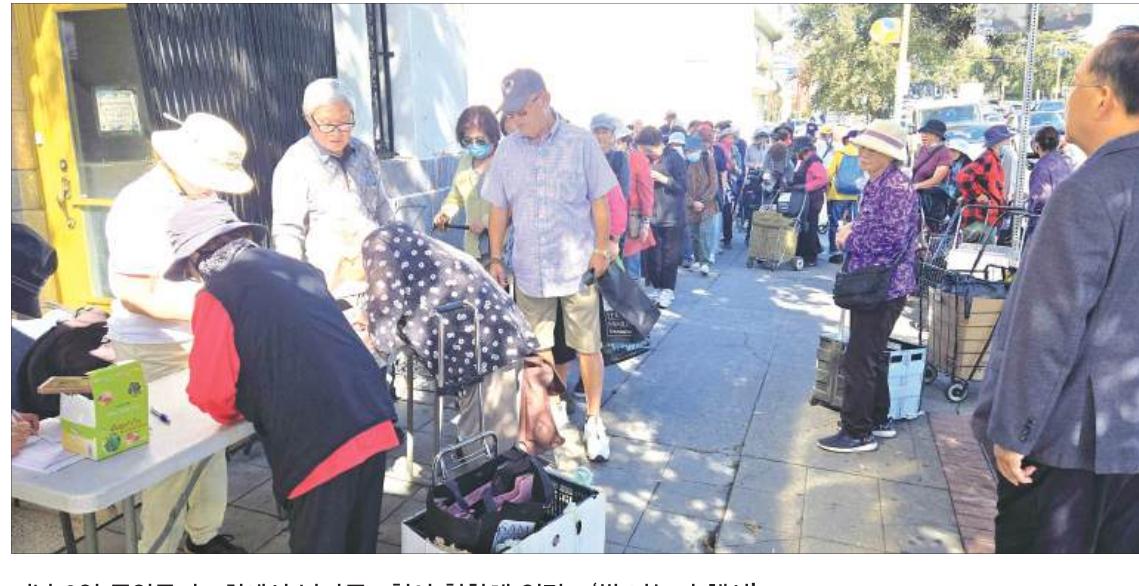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 Tel. 562-606-2345 , 213-249-4790

‘사랑의 점심식사’ 10월에도 따뜻한 나눔 이어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가 협력하는 대표적인 시니어 섬김 프로그램 ‘사랑의 점심식사’가 지난 9월 11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중앙루터교회(S. Gramercy Pl.)에서 열렸다.

2010년 가을에 처음 시작된 이 사역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으며,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에도 약 2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해 풍성한 점심과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교제를 나눴다.

행사는 김영규 목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주관하고, 남가주 교협이 협력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LA 경찰과 LA 카운티 경찰이



지난 9일 중앙루터교회에서 남가주교협이 협찬해 열린 ‘쌀 나누기 행사’

함께 참여해 “Addressing Hate Crimes and Incidents(증오범죄 및 사건 대처)”를 주제로 세미나

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영규 목사는 “사랑의 점심식사는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시니어들이 존중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며 “15년째 이어온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9일(목)에도 교협이 협찬하는 ‘쌀 나누기 행사’가 LA 한인타운 중앙루터교회에서, 10월과 11일에는 샘커뮤니티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이윤준 기자

→1면 기사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이어서

그러나 솔로문이 그가 많은 복을 받은 후 변질된 것처럼, 미국 역시 초기의 기독교적 정신을 잃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자유라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며, 점차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나라, 기뻐하셨던 교회, 기뻐하셨던 성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어서 강순영 목사(준비위원회)가 이 대회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세계 부흥운동의 진원지로, 아주사 부흥 당시 ‘100년 후 LA에 다시 강력한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며 지난 10여 년간 한인 교회들이 부흥 운동을 이어 왔고, 한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과 부흥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세계 선교를 이끌어 온 나라입니다. 이제 다시 신앙의 부흥을 통해 존경받는 나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엘에이의 교회들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세계로 불길이 번져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에 있을 2025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백인, 히스파닉, 유대인, 아프리카계,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일본인, 베트남계 등 다양한 민족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부 순서로 기도회가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무궁화 합창단(지휘 지경 교수)의 특별 찬양 후 신용환 목사(공동 대회장)가 첫번째 순서, 회개를 위한 도전을 인도하고, 변재령 목사(GMI)가 회개 기도를 이끌었다.

김은목 목사(남가주 교협)가 두 번째 순서, 미국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정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가 ▶대통령 행정부가 하나님을 구하도록, 김미영 전도사(주님의 영광교회)가 ▶미국의 신앙 부흥과 성경으로의 회복,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관세 정책과 불체자 추방으로 인해 미국의 어려움들, 유수연 교육위원이 ▶캘리포니아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 기도했다.

김은목 목사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기도를 드릴 것을 촉구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 기도가 담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하는 것이 기도이다. 지금 우리 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불씨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 기도한 유수연 교육위원은 캘리포니아가 오늘 미국과 전세계의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며, 세속주의, 무신론의 유혹 속에 뒤덮혀 있는 캘리포니아 공교 육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건져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공립 교육과 대학의 무신론적 영향 아래 많은 젊은이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찰리 커크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캘리포니아에서 터닝포인트 운동을 일으키셨다.”

강태광 목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의 문화와 철학에 압도당하는 대신, 선교사의 눈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보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며, 선교사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 도시, 최고의 문화도시, 최고의 철학 도시 아테네의 모습에 암도당하는 대신 우상을 보았다. 우리도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수많은 우상이 보여야 할 줄 믿는다.”

바울은 선교사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가득한 우상 때문에 분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을 위한 기도도전이었다. 공동대회장 민경업 목사(남침반 교회)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최국현 목사(OC교협)이 ▶한미갈등 해결과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민경업 목사,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민경업 목사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를 언급하며, “우리가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C.S 루이스의 ‘모든 권세들에게 냉철하게 조건적으로 복종하라’를 인용하며, 이것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 신사참배를 언급했다.

“히틀러가 이 말씀을 이용해 정치를 했다. 나치즘에 항거한 사람은 본회파 같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독일 교회 전체가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려면서 지금 까지 회개한다.”

그는 크비슬링 정권이 파시즘으로 노르웨이를 점령하려 했을 때, 루터파 1300명 목사들이 전부 다 사표를 내며 저항한 결과, 그 정권이 무너졌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다민족기도대회를 위해 김기동 목사(공동준비위원장 역임)가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김철민 장로(CMF), 하위드리 장로(열바인사랑의교회), 김영수 장로(다민족기도대회), 홍우규 목사(청교도신앙회복운동)가 기도도 함께했다.

기도회는 강태광 목사(다민족기도대회 사무총장)의 감사와 공지에 이어 이도한 목사(충현선교교회)의 식사기도로 마무리되었다.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오렌지한인교회 ‘Go Against The Flow’ 찬양부흥회 개최

풀러턴에 위치한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가 오는 10월 17일(금)과 18일(토) 일 앤드 ‘Go Against The Flow’,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를 주제로 찬양 부흥회를 개최한다.

회를 개최한다.

17일은 영어권 성도들을 위한 집회로 오후 6시부터 프뉴마 워십의 인도자인 정유성 목사가 오렌지 한인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말씀을 인도한다.

18일은 한어권 성도들을 위한 집회로 오후 6시부터 프뉴마 워십의 인도자인 정유성 목사가 오렌지 한인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말씀을 인도한다.

두 번의 집회 모두 Child care가 준비된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오렌지한인교회 홈페이지 www.okcrc.org를 참고하거나 714-871-8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임목사 위임 예배



최원일 담임목사

초·청·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랜드 교회는

최원일 목사님을 제6대 담임목사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랜드 교회와 함께 귀한 사명을

맡으실 목사님의 걸음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25년 10월 2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인랜드 교회 본당 T.(909)622-2324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연극 '사랑해 엄마', 남가주 어머니들 울리다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 남겨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랩

조셉 리 목사 "이 시대 어머니들을 위한 작품"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주최 및 주관해 열린 연극 '사랑해 엄마'가 엘에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후 7시, 13일 오후 2시와 7시에 다우니극장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선보인 이번 작품에는 개그우먼이자 배우인 조혜련 씨가 주연으로 출연해, 가슴 따뜻한 모성의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 연극은 1980년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배경으로 남편 없이 홀로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삶을 담았다. 가난하지만 강인한 어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팔며 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책임진다. 아들 철동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알지 못한 채 사춘기의 반항과 철없음을 드러내지만, 세월이 흐르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야기는 철동의 성장과 함께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렸다. 철동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삶을 찾는 동안, 어머니는 병을 얻어 점점 기운을 잃는다. 결국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철동은 깊은 회한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조혜련 씨는 어머니 역을 맡아 유머와 눈물을 넘나드는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평소 밝은 이미지로 알려진 그는 이번 무대에서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헌신적인 어머니의 내면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 그는 원래 불신자였지만 약 8년 전

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성경 바람잡이로 성경 읽기를 권하며 간증 집회 등 활성화 활동하고 있다.

관객들은 "너무 감동적인 연극 이었다. 앞으로 남가주 지역에 이런 공연이 자주 열리길 기대한다"고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연극 '사랑해 엄마'는 단순히 모자의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가족 애의 가치를 전한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일상의 대사 하나 하나가 관객들의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며,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랩되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무대 배경인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교회에 가야한다'는 대사를 배우들이 언급하는 등 복음을 전하는 요소가 극 중 곳곳에 묻어난다. 관계자는 "이 작품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엄마 이야기'다"며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세지가 있다"고 전했다. 연극 공연 후 러빙워십 대표 조셉 리 목사는 "사랑해 엄마'는 이 시대 자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이 공연 관람을 위해 달лас, 시애틀, 샌디에고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셨다고 들었다.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에 활력이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 문화사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연극 '사랑해 엄마'가 엘에이 무대에 올라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토렌스조은교회 가명훈 담임목사 취임예배

토렌스조은교회는 오는 10월 26일(주일) 오후 4시, 제3대 담임 목사로 가명훈 목사의 취임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교회는 지난 8월 31일 주일, 전교인 임시사무총회를 열어 청빙 투표를 진행했으며, 96.8%의 찬성으로 가명훈 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가명훈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소속 시카고 북부 링컨사이어 한인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했으며, 지난 9월 28일 주일부터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2025 GBC 공개헌금의 날, 목표액 넘어 40만6,737.96 달러 모금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이 방송 사역 후원을 위한 '2025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을 지난 10월 3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목표액을 넘어 총 40만6,737.96달러(약정액 포함)를 모금하는 은혜로운 결실을 맺었다.

올해 공개헌금의 날은 오전부터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원자들이 본사와 12곳의 부스를 찾아 참여했으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

한 후원도 끊이지 않았다. 애너하임 본사에는 새벽부터 찾아온 첫 헌금자,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참여한 자녀들, 고령에도 직접 방문한 성도 등 각양각색의 헌신이 이어졌다. 어려운 시기 더 큰 현금을 드린 후원자, 방송을 듣고 감동해 처음 참여한 후원자, 타문화권 후원자들의 동참은 현장을 더욱 뜻깊게 했다.

행사 당일에는 '아름다운 가게' 할인 이벤트, 부스별 현장 프로그램, 동역업체의 면거리 제공, 무료



헤어컷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했다. 또한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도 마련돼 축제 같은 분위기를 더 기관, 신학교 관계자들이 생방송에

직접 참여해 GBC의 사역이 이민자 공동체에 끼친 영향과 사랑을 함께 나눴다.

이영선 사장은 "34년간 상업광고 없이 오직 후원으로 방송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방송을 지키고자 한 청취자와 후원자들의 힘 덕분"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과 함께해 준 분들의 헌신이 이번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Halloween Day 를 Holy Win Day 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할로윈데이(Halloween Day)가 오는 10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공포, 귀신, 악령, 죽음의 놀이에서 빛과 생명,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날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에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목회자들과 학부모님들께 경각심을 촉구하며, 교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안 및 협조 요청사항

- 담임목사님들께서는 강단에서 할로윈데이의 비기독교적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고,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교회는 할로윈데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각 교회 행사로 전환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자체 행사가 어려운 교회는 지역별 연합행사에 참여하여 교육부 책임자와 함께 교회별 부수 운영 및 간식 제공과 각종 놀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연합행사 안내

● 일시: 2025년 10월 31일(금) 오후 5시-9시

● LA지역: 새생명비전교회 (New Life Vision Church)

323-373-0110 / 4226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 OC지역: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 GMI)

714-446-6200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미주성시화운동본부 (MIJU HOLY CITY MOVEMENT)

연락처 : 213-448-3493

213-407-4569

공동대표 :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이사장 : 김재권 장로



주님쳐치, Tres Dias 통해 성령 안의 하나됨 체험!

Joonim Tres Dias 2기 개최
새로운 부흥, 공동체 회복 위해

주님쳐치(담임 최현규 목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Joonim Tres Dias(JTD)' 2기 를 개최해, 80여명의 팀 멤버와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JTD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교단 탈퇴 이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쳐치가 새로운 부흥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2기 훈련에는 영어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했다.

최현규 목사는 "내년에는 영어권 형제, 자매들을 위한 제3기 JTD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영어



주님쳐치, 제 2기 Joonim Tres Dias 훈련. ©주님쳐치

권 간사들과 리더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세대와 언어를 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고 전했다.
'비를 준비하시니 (He Prepares the Rain)'를 주제로 진행된 2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

영적 일치를 이루었다. 이들은 "언어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다",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전하며, 이번 JTD가 단순한 수양회가 아닌 성령의 공동체 회복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도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JTD를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봄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oonim Tres Dias(JTD)는 스페인어로 '예수님 안에서의 삼일 간의 여정'을 의미하며,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돋는 영성 프로그램이다.

조셉 리 기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짹, 찾고 계신가요?

믿음의 만남, 믿음의 결혼
Heaven Matched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가정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사역 'Heaven Matched' 가 시작됐다.

이 사역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창 2:18)는 말씀에서 출발해, 믿음의 청년들과 시니어, 재혼을 원하는 이들을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연결하는 크리스천 매칭 사역이다.

Heaven Matched는 기존 결혼 정보회사가 아닌, '기도로 준비된 배우자 찾기 운동'을 지향한다. 외적인 조건보다 신앙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만남을 돋는다. 운영 방식은 AI 매칭 시스템과 오프라인 리트릿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는 기본 프로필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Pay as you go' 방식으로 운영된다.

AI 매칭은 유럽에서 30년 이상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각자의 성향·가치관 데이터를 분석해 신앙 안에서 조화로운 짹을 추천한다. 또한 2박 3일간 진행되는 리트릿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결혼의 의미를 배우며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된다. 참가자는 다양한 복장과 액티비티를 통해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칭이 이어진다.

Heaven Matched는 고액의 회원제 대신,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

을 제공하며, "결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신다"는 믿음 아래 운영된다.

김한나대표는 "Heaven Matched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짹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이자, 교회가 결혼 사역을 함께 세워가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교회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메일: saearc@gmail.com
전화: (714) 510-6585
홈페이지: heavenmatched.com

담임목사 위임 예배



최원일 담임목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랜드 교회는 최원일 목사님을 제6대 담임목사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랜드 교회와 함께 귀한 사명을 맡으실 목사님의 갈음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25년 10월 2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인랜드 교회 본당 T.(909)622-2324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인랜드 최원일 담임 목사 위임 예배

포모나에 위치한 인랜드교회가 오는 10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인랜드 교회 본당(91101 Glen Ave. Pomona, CA 91768)에서 제 6대 담임 최원일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린다.

인랜드교회는 지난 7월 6일 제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통해 최원일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를 88.4%로 청빙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일시: 10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주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전화: (909) 622-2324

선한목자교회 50주년 기념 부흥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치노힐스 ECO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

(금-주일)까지 주안장로교회 주

승중 목사를 초청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사도행전 21:14)라

는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연다.

10/24(금) 오후 7:30

10/25(토) 오전 6:30, 오후 7:30

10/26(주일) 오전 8:30, 정오 12시, 오후 3시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경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 기독교교회 협의회 주최

일일 무료관광에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사역의 아름다운 미담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일 시 : 2025년 11월3일(월) 오전 8시 출발

출 발 장 소 : 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바실 성당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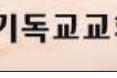
여 행 코 스 : 샌디에고(라구나코브 비치→ 점심→미드웨이군함, 오션파크 등)

도착 예 정 : 오후 6시 30분, 620 S. HARVARD BL. LA CA 90005(바실 성당 주차장)

대 상 자 : 기독교 단체 사역자(선착순 55명/10월25일 마감)

참 가 비 : 전액 무료 (점심, 간식 제공)

신청 및 문의 : 310-706-7721(진건호 목사)



주최 :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진건호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
in BUENA PARK**

2025. 11. 03 (월)
오전 10시 샷건
오전 9시까지 체크인

골프 대회 참여 정보

참가비 \$180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 & 디너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대회주소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오늘의 스코어? 선물 한가득 가져가셨습니다~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아시아나 LA - 한국 왕복 항공권
다이아 목걸이
정관장 홍삼 세트
폴라리스 성형외과 상품권
K-Beauty 성형외과 상품권
남 / 여 사우나 입장권
가부키초스시LA 식사권
청운부페 식사권
올림픽골프 상품권 + 골프용품
Park Golf 골프용품
Berryland 건강 제품
포크벨트 천연가죽벨트 등등

총 \$2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실력과 상관 없이 참가자 전원 모두에게 함께 나눕니다!

*상품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품 목록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참가 문의 (888) 847 - 3098 · 9 AM - 5 PM (월 - 금)

후원

ASIANA AIRLINES

BERRYLAND
fresh and delicious

포크벨트

가부키초스시

JUNG KWAN JANG

K-Beauty 성형외과

OLYMPIC GOLF SINCE 1983

PARK GOLF.AI

Polaris
medical aesthetics

美 전직 목회자들 “가족을 우선시하라” 조언

목데연, 美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 소개

“24시간 대기 압박 느꼈다” … 심리적·정서적 부담 커
가족의 재정 불안 걱정 많아… “사랑하고 존중해 달라”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결과가 한국교회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주요 개신교 4개 교단(하나님의 성회, 나사렛교, 웨슬리안교, 남침례교단) 소속 전직 목회자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 지용근)가 14일 <네버즈 306호>에서 이를 소개했다.

조사 대상자 3명 중 1명은 45세 이전에 강단을 떠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소명의 변화’(40%)로 나타났다. 이어 ‘교회 내 갈등’(18%), ‘변아웃’(16%), ‘가족 문제’(10%), ‘개인 재정 문제’(10%) 등이 뒤를 이었다.

전직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5%)는 목사로 사역한 마지막 해에 ‘심각한 교회 내 갈등’을 겪었으며, 10명 중 9명(87%)은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 내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변화 제안으로 인한 충돌’(56%), ‘평신도 리더들과의 갈등’(50%), ‘심각

한 인신공격’(49%)이 꼽혔다. 대다수는 ‘갈등의 징후를 찾기 위해 교회 구성원들의 말에 꾸준히 귀 기울였다’(86%)고 응답해, 갈등을 인지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 줬다.

전직 목회자의 80%는 목회 중 “하루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64%는 “목회자라는 역할에 압도당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했다. 또한 절반 이상(53%)은 “사역의 요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응답해 심리적 압박이 심했음을 보여 줬다. 전체 응답자의 68%는 “목회자로서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목회 현장의 심리적 외로움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전직 목회자 4명 중 3명(74%)은 ‘일주일에 5회 이상’ 설교 준비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며, 10명 중 7명(68%)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휴식을 취했다’고 답해, 영적 생활과 자기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전직 목회자 10명 중 7명(73%)



©Ben White/Unsplash.

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자주 걱정했다”고 답했다. 절반(50%)은 “사역 부담으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68%는 “일정이 겹칠 때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고 답해, 내면적으로 가족을 의식했음을 알 수 있었다. 65%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족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었다”고 답해,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직 목회자들은 현직 목회자에게 ‘사역 성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물었을 때, “

가족을 우선시하라”(20%)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목데연은 “목회가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의 안정이 목회 지속의 토대”라고 해석했다. 이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어라”(16%),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14%), “기도하라”(9%) 등이 뒤를 이었다.

교회가 목회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담임목사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라”(14%)와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라”(1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휴가를 주고 보호하라”(12%), “격려하고 돌보

라”(11%), “지지해 주라”(10%),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라”(1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는 목회자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목회자 가정에 대한 실질적 돌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소개하며 “목회의 성공이 결국 ‘건강한 가정’ 위에 세워질을 보여준다”며 “가족 돌봄”을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목회 리더십’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목회자 가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14%), 정기적 휴가와 안식년을 제도화해 ‘쉼의 리듬’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목회자 스스로도 공적 영역인 사역과 영적·개인 삶의 균형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영적 훈련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목회자의 삶이 가정을 흐사시키는 ‘오직 사역 중심’에서 ‘가정이 중시되는 건강한 목회 생태계’로 전환될 때, 목회자의 번아웃을 줄이고 교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이전호 기사 “목회자들에 ‘시계’에 이어서>

성경 말씀이 법률과 동일한 위치도 아닙니다. 다문화·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마치 싸우자는 식의 표현으로 다가가선 안 되겠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 문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우도 극좌도 마찬가지인데, 폭력적·혁명적 방법을 사용하려 해요. 상식과 합리성 안에서 대화하고 이끌어 가야죠. 신앙과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변역’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낙태나 암살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오히려 낙태가 여성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암자를 위하자면서 태아와 산모 중 누가 더 약자인지 등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왜 안 되는지 차분하고 겸손하게 설득해야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는 식으로 가면, 전도의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신념을 포기하고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자는 방법론적 차원이에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누구를 찍으라는 건가요?’ 하면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하십니다.

카리스마적 설교를 좋아하고, 결정해주길 바라시죠. 내 생각대로만 하면 잘못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40대만 돼도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곧바로 ‘왜요?’라고 되물어요. 설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허리가 없다는데, 다리도 없어요. 깔대기형이 되어가고 있는데, 40대 이하 세대를 다시 교회로 부르려면 합리적 언어로 설득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있지만, 문화는 변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방식은 소통으로 보기 힘든 일방적 선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에서 학생들 중 80%가 비기독교

인인 가운데 기독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자’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지만 매 학기 말이 되면 10명 정도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 ‘기독교가 궁금하다’고 해요. 젊은이들의 그런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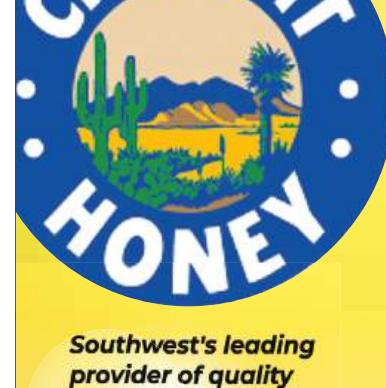
이상갑 목사: 설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동이 아닌, 선교적 언어로요. 변증 설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말하면 틱겨 나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뉴욕 변증 사역을 한국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내용도, 오늘 말씀도 너무 비판 일변도 아닌가요.

이상갑 목사: 물론 책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은 긍정적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한 쓴소리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보고 끝나선 안 되겠죠. 선지자적 메시지만 던져선 안됩니다. 대안을 소개하고, 미래와 소망을 줘야죠.

과 소통하기 위해 담론의 장을 회복하고, 구성원 하나하나가 능동적인 사고 주체가 돼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리며, 분열되고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의사소통이 아닌, 수평적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숙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빛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울메디칼그룹 X 한미메디컬그룹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의료진, 더 많은 병원, 더 다양해진 케어

5,500여 명의 의료진

각 분야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크게 늘어나
나에게 맞는 의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폭 확대된 네트워크

제휴 병원, 의료기관, 헬스플랜 등이 늘어나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올바른 영양섭취, 운동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개 가까운 진료과목과 케어

일반진료에서 재활, 정신건강, 가정간호까지
환자 증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향상된 시스템

쉬운 진료 예약, 빠른 전문의 및 병원 허가 등
환자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형 통합 케어

평소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를 위한 정기
체크업 등 한분, 한분 가족처럼 돌보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섬세한 진료와 편안한 서비스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SMG
서울메디칼그룹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英 교계 지도자들 “전환치료 금지법, 기독교 범죄화 가능성”

영국의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법안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복음 전파나 자녀의 성별·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상담을 불법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The Telegraph)에 따르면, ‘렛 어스 프레이’(Let Us Pray) 캠페인과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가 주도한 공개서한에는 여러 교단을 대표하는 24명의 지도자가 서명해, 평등부 장관 올리비아 베일리(Olivia Bailey)에게 전달됐다.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노동당이 추진 중인 성적 지향 전환 시도 금지법에는 목회 상담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 가르침을 범죄화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불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이 성별 혼란을 겪는 자녀에게 신중할 것을 권유하는 부모의 발언까지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아동학



영국 런던.(사진은 기사와 무관)

대나 폭력행위를 처벌할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며, “법안 추진 세력은 교회의 일반적 사역을 학대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자들은 특히 “기도나 목회적 대화까지 ‘전환 치료’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기독교적 성윤리와 성별관에 대한 단순한 신앙 표현조차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지적했다. 기독교 연구소 대변인은 최근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베일리 장관이 “전환 치료 금지 조안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노

동당은 수차례 법안을 약속했지만,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실현 가능한 법안은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2024년 ‘평등과 기회의 사무국’(Office for Equality and Opportunity) 출범과 함께 전환 치료 금지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당은 “성전환을 포함한 포괄적 전환 치료 금지법”을 약속하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는 이미 2017년 총회에서 전환 치료 금지를 지지한 바 있다. 성공회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교단은 강압적 전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며, 정부의 금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연구소는 지난 6월, 노동당 정부가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협력해 법안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위한 법안 조안이 “며지않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당선 공약집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탐색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포괄적이고 성전환을 포함한 전환 치료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명시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4년 9월, 사법 검토 논란으로 자체 법안 추진을 일시 중단했지만 “영국 전역과 보완적 접근”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카우카 스튜어트(Kaukab Stewart) 평등부 장관은 “만약 영국 정부의 법안이 충분하지 않거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의회 회기에서 독자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지난호 기사 '성경, 세상을 구원 하려는..'에 이어서〉

(p. 148, 루터는 이토록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반유대주의자였다)

이들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품에 대해 한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과 언약관계는 영원한 것이 맞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버리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을 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교회가 지탱할 발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지 않는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p. 150)

3. 하나님의 백성: ‘한 새 사람’의 성취를 방해하는 반유대주의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벧전2:10).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교회

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연합하여 온전해진 성도의 무리, 곧 ‘한 새 사람’을 이룰 것(엡2:15)을 명령한다. 교회의 완성은 ‘한 새 사람’의 성취이다. 한 새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를 완성시키는 것(엡2:22)이다.

참으로 역사가 아이러니가 아닌가? 중세의 암흑기를 깨치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1483-1546)가 “가혹한 대체신학 입장을 촉진시켰다. 예루살렘은 루터시대까지 파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증거로 보았다. 루터의 잔인한 반유대적인 전술은 훗날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의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명분을 제고하기에 충분했다.”(p. 216, 오후 통재라!) 오늘날 ‘한 새 사람’의 성취를 방해하는 반유대주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난해(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귀가 미워하듯, 유대인들에 대한 마귀의 증오는 끈질기다. 마귀는 메시아의 초림을 막으려 했으나(마2:13, 20)

결국 실패했다(21절). 마귀는 자기 운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림을 방해하고 있다. 마귀는 홀로코스트(holocaust)에 대한 기억을 70년이 지나는 동안 희미해지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홀로코스트의 금지한 역사를 모르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과 같은 해(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5월 14일)과 예루살렘 회복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국가를 접두국가, 인종학살, 인종차별 국가로 인식하고 공격한다. 그리고 마귀는 아직도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현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한다. 교회는 대체신학을 회복신학으로 바꾸고 유대인들에 대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그럴 때 한 새 사람 성취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4. 대체신학을 극복하고, 반드시 ‘회복신학’이 필요하다.

서평 마치기 전에 대체신학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 보고자 한다. 상당수의 본 서평을 읽는 독자들은 혼란스러워 할 듯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평자도 이번 기회에 대체신학과 건강한 개혁신학이 어떻게 차

별되는지를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대체신학의 출발은 2,000년 전, 반유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였던 사단이 대체신학의 뿌리인 셈이다. 사단은 유대민족을 증오한다. 반유대주의의 열매가 대체신학이기 때문이다.

4.1.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 혹은 대체주의(replacement theory)” 란?

“유대인들과 맷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독교로 이전 되었다고 가르친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순절 이후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교회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약속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은 많은 부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도 대체신학은 기독교 교회가 축복받으리라는 뜻으로 해석한다.”(p. 335, 구구 절절이 맞는 같지 않은가? 상당수의 보수주의 기독인이 이렇게 믿는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로 대체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통치자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다(행4:27).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논리라면 교회가 범한 죄도 유대인 못지 않은 악을 행하였기에 베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으셨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들의 최종 성취란 측면에서 모형적(typical)이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그 대형(antitype)으로 대체된다고 묘사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맷은 언약과 약속의 본질상 이스라엘은 모형이 될 수 없다”. 예레미야서 31장 35-37절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지 않은 한 이스라엘 국가는 지속될 것이고, 이사야서 66장 8절은 한 순간에 이스라엘이 태어날 것이라 말한다”(pp. 338-39,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해 주는 성경구절, 마19:28, 23:39, 뉴21:24, 행1:6, 롬11:26, 계7:4-8. 결코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의 기준이 아니다. 신약성경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공존하여 등장하나,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되었다).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714.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풍성한 혜택
가을 스페셜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조용히 떠나는 노년층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샘 레이너 목사. ©churchanswers.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샘 레이너 목사의 기고글인 '노년층 성도들이 충격적인 숫자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Senior adults are leaving the Church in alarming numbers)를 1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레이너 목사는 플로리다의 웨스트 브래드턴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처치 앤서스(Church Answers)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수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 세대의 이탈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Z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놓고 논의했으며,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한 수많은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 모든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거의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출애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것은 바로 노년층의 조용한 이탈이다.

젊은 세대처럼 노년층은 화려한 선언이나 분노에 찬 SNS 글로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서서히 사라진다. 매주 빠짐없이 예배당을 채웠던 부부의 자리가 비어 있고, 수십 년 동안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교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 후 한 과부가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소란도, 갈등도 없다. 오직 부재(不在)만 남는다.

이 조용한 이탈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많은 교회에서 노년층은 예배 출석의 중심축이다. 그들은 가장 신실한 현금자이며, 가장 꾸준한 봉사자이다. 가장 믿음 깊은 중보기도자들이다. 이들이 떠나면 교회는 현금함에서, 친교실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공백을 즉시 느낀다.

젊은 세대만 바라보다 보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침식을 놓칠 수 있다. 교회는 노년층의 조용한 출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존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자산이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

교회 감소에 대한 통계는 대개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수치는 노년층에 대해서도 냉정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의 교회 내 존재감은 예전만 못하며, 많은 목회자들이 조용히 체감하고 있는 추세를 데이터가 뒷받침한다.

갤럽(Gallup)의 지난 20년간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는 65세 이상 미국인의 약 60%가 매주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 수치가 45%로 떨어졌다. 단 한 세대 만에 15%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퓨 리서치(Pew Research) 또한 '침묵의 세대'(1946년 이전 출생)와 고령 베이비붐 세대의 종교 활동이 지난 10년 동안 약 10%포인트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작은 교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다. 출석 인원이 200명 이하인 교회에서는 노년층이 가장 신실한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이 빠지면 단지 한두 명의 결석이 아니라, 교회가 수년간 의지해온 안정감과 혼신의 상실이 된다.

이 현상을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건강 문제나 이동의 어려움이 일부 원인지만, 연령층 전반에서의 지속적 하락은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층은 조용히 물러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있다.

왜 노년층은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는 대체로 복잡하고 미묘하다.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조용한 이유로 떨어진다. 가장 흔한 이유는 건강과 이동성 문제다. 밤 운전이 어렵고,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며, 계단이나 주차장조차 부담이 된다.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 예배 참석이 힘든 경우도 많다.

또 다른 요인은 또래 상실감이다. 과거에는 친구들로 가득했던 성경공부반이 이제 몇 명만 남았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교회는 잊어버린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참석 의욕도 함께 사라진다.

교회 내 우선순위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교회가 젊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하지만, 그 결과 노년층은 주변 부로 밀려난다. 예전엔 "우리 교회"라 느꼈던 곳이 이제는 "다른 세대의 교회"로 느껴진다. 예배 형식과 리더십의 변화 또한 거리감을 만든다. 음악 스타일, 예배 속도, 젊은 목회자의 문화적 감수성 등은 그들에게 낯설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한 발 물러선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는 너무 늦게서야 그 부재를 깨닫는다.

재정과 사역에 미치는 여파

노년층의 이탈은 단순히 빙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선에 타격을 준다. 먼저 재정적 영향이 크다. 미국복음주의재정책임위원회(ECFA)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교회 전체 현금의 약 40%를 담당한다. 그들은 현금을 신앙의 의무로 여기는 세대다.

그들이 떠나면 현금함은 즉각 가벼워지고, 이는 교회의 운영비뿐 아니라 선교, 구제, 아웃리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산 현금(legacy giving)도 줄어들어,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할 자원을 잃게 된다.

사역적 영향도 심각하다. 노년층은 가장 신실한 봉사자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남고, 주방을 지키며, 주보를 접고, 뒤에서 북북히 섬긴다. 그들이 빠지면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기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 재정, 봉사 세 영역이 동시에 흔들린다.

사역적 영향도 심각하다. 노년층은 가장 신실한 봉사자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남고, 주방을 지키며, 주보를 접고, 뒤에서 북북히 섬긴다. 그들이 빠지면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기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 재정, 봉사 세 영역이 동시에 흔들린다.

놓치고 있는 사역의 기회

노년층의 이탈은 단순히 문제만이 아니라 놓쳐버린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지혜와 간증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새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며, 노년층의 목소리는 점점 묻힌다.

또한 그들은 시간과 혼신의 여유가 있다.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에 쫓기는 젊은 세대와 달리, 기도와 멘토링, 섬김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 바울이 디도서 2장에서 말한 "늙은 자들이 젊은 자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의 믿음은 변함없는 안정감을 교회에 제공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방향을 잊지 않도록 불잡아주는 닷과 같다.

교회가 취해야 할 대응

이 조용한 출교가 실제라면, 교회는 인정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의도적인 돌봄: 교통 지원, 온라인 예배 연결, 심방 등 작은 배려가 "당신은 잊히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2. 세대 통합 사역: 세대를 구분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장을 마련하라. 젊은 세대는 지혜를 배우고, 노년층은 힘력을 얻는다.

3. 가시적 리더십 참여: 은퇴한 교사, 과부, 노년의 성도에게 멘토와 상담자의 자리를 주라. 그들의 신앙 여정이 제자훈련의 교재가 될 수 있다.

4. 설교와 사역에서의 공감: 노년층의 외로움, 건강, 돌봄의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설교 속에서도 다뤄야 한다.

교회가 노년층을 다시 품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이다. 그들의 기도, 혼신, 그리고 존재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최승연 기자

1부에비 오전 8:00 금요일이기도회(미지역) 오후 8:30 2부에비 오후 11:00 세벽예배(화-금) 오후 6: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에비 오전 7:45
2부에비 오후 9:10
3부예배 오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벽예배(화-금) 오후 6:00(토) 오후 6: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성경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것의 명장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차나무 오방리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지난 12일, 오랫동안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훔리를 섬긴 노명희 선교사가 LA씨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노명희 선교사, 미주복음주의장로회 목사 안수 받아

지난 10월 12일(주일), 오랫동안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훔리를 섬긴 노명희 선교사가 LA씨티교회(씨니 김 목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새로운 사역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안수식은 1부 예배와 2부 안수예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미주복음주의장로회가 주관했다. 교단 관계자들과 지역 교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한 평생 복음과 섬김으로 헌신해 온 사역자의 부르심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예배는 지은옥 장로(LA씨티교회)의 찬양과 기도로 시작됐으며, 찬송 '구주와 함께 나죽었으니', 씨니 김 목사(LA씨티교회)의 이사야 41장 8~10절 말씀 봉독에 이어,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전총회장 김재연 목사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재연 목사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완성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불들릴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사명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명희 목사는 이미 지난 9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자비량으로 훔리스와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왔다"며 "오늘의 안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현신된 삶 위에 하나님의 인정을 더하신 사건"이라고 축복했다.

예배에 이어서 안수 예식이 진행됐다. 씨니 김 목사의 사회로, 안수 대상자 소개 및 서약, 심진구 목사의 안수 공포와 안수패 증정, 특송, 전모세 목사(전 총회장)의 축사, 샘 신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권면, 폴 김 목사의 축하 및 광고, 노명희 목사의 감사 인사, 찬송 "행군 나팔 소리에", 전지승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샘 신 목사는 세 가지 권면을 전하며 노 목사에게 목회자의 본질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첫째, 목회자는 먼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며 "많은 일을 감당할 때가 오지만, 그보다 먼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사랑의 깊이가 곧 사역의 깊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사람을 향한 눈을

잃지 말라. 사람은 설교로 변화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변한다"며 목회의 중심이 사람을 향한 사랑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주님께 드려진 종으로 남으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눈물로 끝까지 충성하는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폴 김 목사는 광고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며, 노명희 목사의 안수의 의미를 나눴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노명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제부터는 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다. 미주복음주의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노명희 목사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학부와 선교학 석사,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최근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 목사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현재 플러신학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지난 9년간 LA시티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 자비량으로 훔리스 사역과 주중 예배, 목양 사역을 감당해왔다.

주디 한 기자

베델교회 더브릿지 콘서트...음악으로 치유 전한다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자선 음악회 'The Bridge Concert'가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6시, 베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일본과 한국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어 '상처 입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Bridge)'로 준

비됐다. 이번 무대의 총연출을 맡은 공민(Paul Min) 선교사는 과거 유재석·유희열 등이 소속된 기획사 '언테나(Antenna)'의 공연 디렉터로 활동하며, 동방신기·빅뱅 등 정상급 K-POP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음악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스가 나오코(Naoko Suga)는 UCLA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켄터키 오페라와 오페라 아이오와 등 미국 주요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동해왔다.

문의: 손용주 목사 (949) 854-401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고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전기세 50~90% 절감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제2기

We Bridge

교회 모집

We Bridge 사역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목회자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We Bridge 교회 선정기준

1. 교회 설립 10년 미만의 교회
2. 자체 건물이 없고 예배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
3. 건강한 교단의 교회
4. 담임 목사 나이가 59세 미만, 담임 목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
5. 예배인원이 성인 40명 이하의 교회

선정된 교회에 주어지는 혜택

3년간 매월 \$500 지원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5일(토)까지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선정발표** : 2025년 11월 1일까지 개별통지

■ **문 의** :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a@gmail.com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We Bridge 사역 1기 감사 및 2기 출범예배



■ **날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 1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새라 김 칼럼

트랜스젠더 선수와 경기 거부했던 기독교 학교, 법정에서 승리!



새라 김 대표

TVNEXT.org

판결의 뒷배경:

2023년 2월, 'Eagles(독수리)'로 알려진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학교(MVCS)의 여고생 농구팀은 버몬트 주에서 열리는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상대팀 명단에 키 180cm가 넘는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 학생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MVCS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성경적으로 '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트랜스 남학생이 있는 롱 트레일 스쿨(Long Trail School)과의 플레이오프 경기 출전을 포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선택한 결정: 트랜스젠더와의 경기를 거부한 댓가는 가혹!

2023년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Pro-Transgender 정책화 된 문화 속에서, MVCS 여고생 농구팀이 출전을 포기한 것은 가혹한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는 대단한 신앙의 결정이었습니다. MVCS 결정의 결과로, 버몬트 교장 협회(Vermont Principals' Association -VPA)는 MVCS 여고생 농구팀을 체육 협회에서 제명해버릴 뿐 아니라, MVCS 해당 학교를 주정부가 후원하는 모든 '스포츠' 및 스펠링 경연대회, 과학 박람회, 토론 대회 같은 '비스포츠' 경연대회에서까지 퇴출시켜버리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학교!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고등학교는 버몬트 교장 협회(VPA)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처벌에 맞서 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라는 자유수호 기독교 변호단체를 통해 버몬



트 교장 협회와 관련된 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인 2025년, 마지막 판결이 될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버몬트 지방법원(District Court) 명령을 뒤집은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MVCS 학교가 버몬트 교장 협회에 재가입 할 수 있도록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송을 받은 버몬트 교장 협회(VPA)의 제이 니콜스 사무총장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학교들을 비판하며 미드 버몬트 고등학교(MVCS)의 결정을 "종교적 자유로 가장한 노골적인 트랜스젠더 차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드 버몬트 크리스천 학교(MVCS)의 이글스(Eagles) 팀을 거의 10년간 이끌어온 크리스 굿윈(Chris Goodwin) 감독은 자신의 딸도 MVCS 여고생 농구팀에서 뛰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남자도 여자일 수 있고 남성 운동선수가 여

성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버몬트 주 정부의 본질적으로 반성경적인 시스템적 이념에 동의하는 것이 되는 것에 경기를 포기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David Cortman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기독교 학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세웠다고 다음과 같은 말했습니다. "MVCS 학교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모든 운동부 활동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은 주 정부가 내린 매우 부적절하고 차별적 결정이었다"

"그래서 미연방법원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 MVCS 학교가 모든 스포츠와 비스포츠 활동에 복귀하고 다른 모든 학교들과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승리는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계속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한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나 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 29:25

■ 민종기 칼럼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수아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출애굽은 당시의 노예들이 최강 대국 이집트와 겨루어 성취되었고, 가나안 정복은 잘 죽성된 원주민의 성채를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도우신 하나님은 두려운 잔상을 우리 마음에 남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요청하시는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앗시리아를 회개시킨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사랑과 구원의 왕이십니다.

가나안 정복과 유대왕국의 건설을 그러면 어떤 명분과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나안 정복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명기 9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움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

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악함으로 쫓아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관연한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둘째는 가나안에 있던 악취 나는 문화를 척결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8:3은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금해야 할 범죄의 내용이 우상숭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 그리고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의 성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는 18장, 20장에서 이중으로 비판되며, 그 땅의 가증한 일 때문에 주민을 토하여 내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아울러 18, 20장 사이 19장에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위대한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킨 후, 위대한 신법(divine law)을 가진 "제사장 국가"를 건설하여 열방의 등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왕국은 왕이 있기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 5경이라는 법전이 있었고, 그 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등

장한 제한군주제 국가였습니다. 법치의 의무는 억압적이기보다는 출애굽기 언약과 신명기 언약, 즉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맺어진 합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안식년, 토지 를 재분배하는 희년의 법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건설을 위해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종교적으로 요청되었으나, 실제로 유대민족은 타협하고 가나안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견고한 성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나 지금의 자리를 포함한 해안지대, 그리고 내륙 벤스안의 원주민들이 그 대로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삿 2:23).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운동은 거의 실패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그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간의 강함을 이겼습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무료로 신앙을 기반한 지역 싱글들과 함께하세요

1. 신규 지원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차 면접 매치메이커와의 만남

저희는 신앙에 기반한 안전하고 개인적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가치관과 삶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연결해 드립니다.

2.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칭을 찾는 동안 초대를 기다리세요.

그룹 이벤트 시간 이벤트, 식사 포함

엄선된 지원자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맞는 만남을 위한 개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이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3. 다른 싱글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 등록하세요.

싱글 수련회 2박 3일 (식사 5회 포함)

아늑한 산 속 휴양과 함께 활동, 대화, 그리고 만남의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우정을 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EAVENMATCHED.COM
GOD IS OUR MATCHMAKER!

여기를 스캔하여
무료로 가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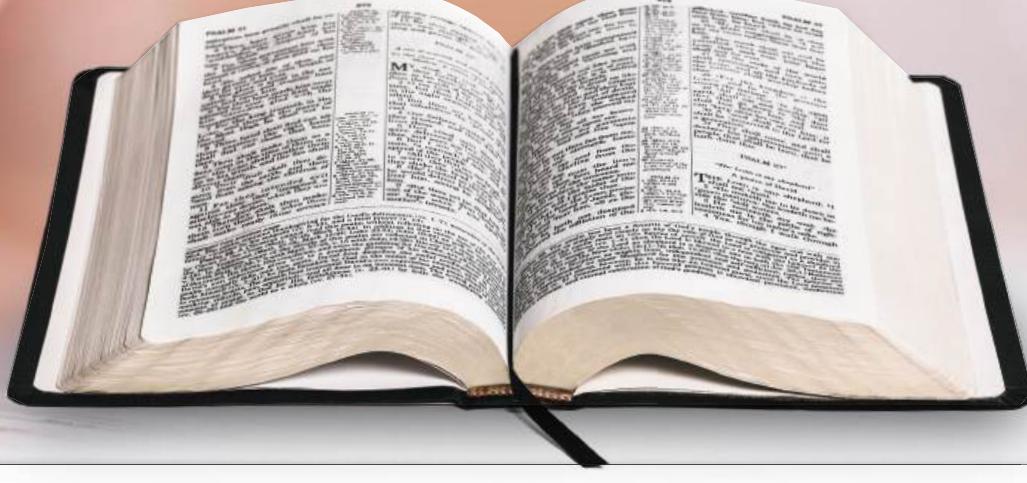
문의전화 (714) 510-6585 SaeArc@gmail.com

트랜스젠더 선수와 경기 거부했던 기독교 학교, 법정에서 승리!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제3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불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장학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나이 만14세~23세)

등록신청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5년 11월 8일(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5년 11월 15일(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5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장소 세계등대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장학금 전달식 2026년 7월 중(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일보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함께 다음 세대 길러내기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굿 파트너' 될 수 있다면



부모,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파트너

필 벨 | 정성목 역 | 디모데 | 268쪽 | 17,000원

이 책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부모와의 협력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말한다. 또 부모와의 협력을 위한 철학과 전략을 교회 전체 삶에 적용할 실천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교회 규모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역 환경에 상관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면 각 교회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

디모데 출판사는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복음으로 길러낼 것인지, 성경적 기반 위에 실질적 원리를 제공하는 적실하고 유익한 책을 많이 출판하는 것 같다.

이번에 출간된 필 벨 목사(Phil Bell)의 책 또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것이다. 대다수의 책이 교회학교 학생을 어떻게 훈련하고 가르칠 것인지를 다룬다면, 이 책 <부모, 다음 세대를 세우는 파트너: 다음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부모 수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교회학교 부모를 어떻게 파트너로 만들어 다음 세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20년 이상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 현장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힘 있게 내온 필 벨 목사는 전국적으로 쓰임 받는 강사이자 블로거, 칼럼니스트다. 2021년 쓴

『The Family Ministry Playbook for Partnering With Parents』이 이번에 번역된 책이고, 2015년 이미 『Team Up!: The Family Ministry Playbook for Partnering With Parents』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이 책이 절판된 것을 볼 때, 아마 이번에 번역된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된 책이 아닐까 싶다). 보통 절판된 책을 재출간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사라져 버리기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의 신앙을 길러내는 책임을 과도하게 교회학교에 부과하거나 반대로 부모에게만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 필 벨은 오랜 교회학교 교사 경험과 자녀가 생기고 나서 자신이 부모로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가 어떻게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둘째로 제목 중 '플레이북(Playbook)'이라는 대목에서 예상되는 전략이나 전술에 치중된 책이 아니다.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하지만, 대부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교

회학교와 자녀 양육의 철학을 바꿔준다는 점이 참 좋다.

저자 필 벨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자로 볼 때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사역에 부모들과 협력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접목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과 내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특정한 배경에서 사역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 하라고 말하는 책이 너무 많다. 내 바람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부모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에도 당신 사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17쪽)."

저자가 언급한 대로, 많은 책들이 교회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가능한 사역을 제시한다. 모두 홈스쿨을 시키라고 하거나, 주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프로그램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라고 도전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사례가 반드시 다른 교회에도 그런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다. 또 성공은 단지 숫자나 피드백에 달린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복음의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이유로 자기처럼 하면 잘 된다고 말하는 책들은 거부감이 생기는 게 사실이다.

저자는 부모가 왜 교회 행사에 덜 참여하거나 소통에 소극적인지, 부모 입장에서 잘 설명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지 도와준다. 저자는 또한 교사가 부모와 아름다운 동역을 하려면, 먼저 교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벨은 "부모와의 협력은 먼저 우리 자신의 가정에 투자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의 가정 안에서 실천



▲과거 꿈미캠프에 참석한 아이들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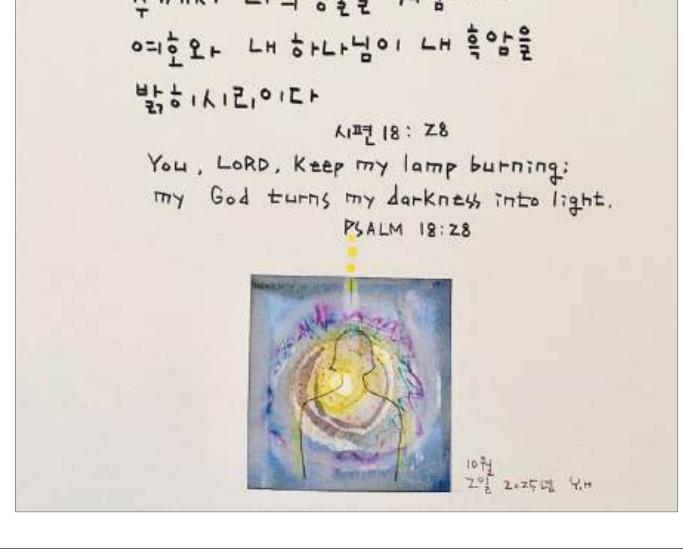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한다(43쪽)"고 말했다. '적용하기'에서는 각 장에서 강조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천 과제를 제공한다. 또 교사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건의하고 관찰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 한 권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완벽한 전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총회와 노회 그리고 각 지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종을 세워 주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케 하시니,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 총회 서부노회가 다음과 같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16)

■일시 : 2025년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예수생명팀교회 (조준석 목사 시무교회) (213)700-5546



약력

한국 장신대 성경통신대학 졸업 (1990)

UCA 학사 및 석사 (2018)

미주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박사 과정 이수

아멘교회(고, 이재성 목사님)과 동역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서부노회 강도사 인허 및 목사 고시 합격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 위원회 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총회장 김창영 목사

서부노회 노회장 정완기 목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목사이자 작가

이연호, 빈민들 섬긴 희생적 삶과 예술

서부이촌동의 빈민가 평생 지켜 병들고 애처로운 사회적 약자들 빈민들 돌보면서 미술 기본 익혀 넝마꾼들 한솥밥으로 목회 시작 이촌동 생활 낭만적 묘사하기도 고통받는 이들 공감, 가장 값져

이연호(1919~1999)라는 이름 앞에는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빈민을 위한 삶'이었다고 본다. 그의 생애는 가난하고 병들고 애처로운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과 분리한다면 그의 예술이나 목회철학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연호는 일제강점기 상록회 사건으로 4년간 투옥, 사상범 교화기관 대화숙(大和塾)에서 억류생활, 춘천고보 퇴학과 배재중학교 편입, 감리교신학교 입학 등 부침이 심했다. 부친의 뜻을 거역하고 신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집에서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기쁨도 잠시, 대다수 국민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영향을 가장 피부로 느낀 사람들은 공동체 유타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곧 빈민층이었다. 이연호는 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을 저버릴 수 없었다. 신학생 시절에는 길거리를 헤매는 거지 아이를 기숙사에 데려와, 자기 방에 재우고 재학생들에게 하루 한 끼씩 제공되는 죽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는 서울 아현동 호반재에서 3년간 걸인과 불구자들을 섬기다 서울의 큰 홍수로 대규모 빈민 지역이 된 한강다리 옆 서부이촌동으로 이주한다. 평소에는 동네 아이들을 한강 모래밭에 모아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오면 자신의 방을 예배처로 개방하였다. 서부이촌동의 '바라크(임시로 지은 작은 집)'는 얼마

전 있었던 홍수로 침수되어 벽이 뜯겨나갔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지붕 위 천막조각들이 바람에 펼려이는 곳이었다. 전쟁으로 피난을 다녀온 것과 미국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 이연호는 이곳을 지켰다.

1950년대 서부이촌동은 우범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걸인, 술주정꾼, 도박꾼, 병어리, 장님, 부랑아, 병자 등, 그들은 툭하면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웠다. 환경이 오염되어 있었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지역을 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의료봉사를 왔다가 이연호를 만나 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젊은 여의사 정용득은 빈민의원을 개원해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정용득 여사는 자녀를 돌보며 병자들을 치료한, 이연호의 든든한 동역자였다.

이연호는 쓰레기를 줍는 넝마꾼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목회를 시작하였다. 이촌동에서 함께 지내던 여인이 폐병으로 죽었고, 돌보던 고아는 미군부대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어버리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달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들을 위한 도움을 멈추지 않았다. 값싼 동정은 그들을 하대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먼저 '인격적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그들을 대했다 (이연호, "외국의 빈민사업과 한국의 빈민사업", 『새가정』, 1961. 2월호, p.29).

그에 관한 소식이 '타임'지를 타고 세계 각국에 알려졌고, 구호물품과 성금이 달지했다. '타임'지 발행인 제임스 린넨(James, A. Linen)은 국내에 파견되었던 유명한 사진작가 칼 마이던스(Carl Mydans)의 말을 인용하여 "그(이연호)는 미국에서 받은 선물에 감격하며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병들었거나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시급



▲이연호, 도시공원이 된 언덕, 종이위에 수채, 1952.

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돋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 그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돋는 것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Time, 1948. 5. 24, 그에 관한 동정은 1948. 2. 16, 1948. 5. 24, 1950. 11. 27, 1950. 12. 11, 1953. 3. 23 등 '타임'지에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됐다.)

이연호 목사는 이촌동 생활이 하루하루 고역스러웠지만, 그것을 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생활을 다소 낭만적으로 묘사한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내 집은 하늘에 가깝다고 외쳐대곤 했다. 낮에는 밀레의 〈농부〉 그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떨어진 옷차림을 한 절호의 모델들이 〈꼴 탄발〉에서 불을 피워가며 일을 한다. 석양이 그들의 등을 비출 때 더욱 좋다. 때때로 불후의 명작을 보는 듯한 느낌에 도취될 때가 있다(1956)."

그는 빈민을 돌보면서도 틈날 때마다 미술의 기본을 익혔다. 미국 로렌스 대학에서 유학할 때 토마스 디트리히(T. Dietrich) 교수에게 미술지도를 받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목회심리학을 전공할 때 코치 박사(Dr. Korch)로부터 기독교미술 과목도 수강한 적이 있다.

1955년 그의 개인전이 동방화랑에서 열렸을 때, 시인 구상은 빈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을 보고 "심각한 충격과 경탄"을 느꼈다고 운을 뗀 다음 "인류나 동포나 형제의 불행을 자신의 혈육의 불행으로 각성하고 통고(痛苦)하고 또 헌신하고 순사(殉死)하려는 자세 속에서만이 이를 조명할 수 있다"고 이연호의 실천적인 삶에서 비롯된 작품세계를 높이 샀다(구상, "작가와 현실과 소재, 그 통고의 자세를 위하여", 경향신문, 1955. 10. 21).

〈도시공원이 된 언덕〉(1952)은 이연호의 초기 작품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이촌동 풍경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화면에는

여러 채의 집이 들어서 있고 집 앞이나 길 사이로 사람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 지금과 같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판자를 지어올린 임시가 옥 형태를 띠고 있고 지붕에는 천막과 방수종이, 그리고 널빤지로 간신히 비바람을 막는 정도의 빈민 주택이 들어차 있다.

이런 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반바지 차림의 인물들이다. 등장인물들은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바깥을 내다보거나 동네 곳에서 강아지 먹이를 쟁여주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도시공원이 된 언덕〉은 전쟁의 참화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담았다.

소묘 〈왕의 손님들〉(1961)에서는 시대의 암울한 풍상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시대의 불행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망각을 환기시키려 했을까. 작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한다.

다리를 잃고 거리로 나온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으며 어깨에 지게를 한 일꾼, 구두닦이 소년과 그 뒤를 따르는 강아지, 우산을 엎구리에 낀 중년의 남성, 바닥의 장애인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작가는 펜으로 아주 세세하게 인물들의 턱수염, 이마의 주름살, 심지어 헝겊으로 기운 바느질 흔적까지 재현하고 있다. 빈민을 주제로 삼은 작품으로,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손님임을 알려준다.

그의 삶은 시종 굽주리고 병든 이웃을 향한 애린 사상과 희생적 실천에 맞추어져 있었다. 시인 구상은 그의 작품에 대해 "피 흐르는 현실에서 작가의 고통 없이는 이 비참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연호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거인의 삶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이연호, 왕의 손님들, 종이 위에 펜, 1961.

법률클리닉&리소스페어

▶ 일시: 11월 1일 <토> 오후 1시~5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 MIJOO PEACH CHURCH
170 Bimini PI, LA, CA 90004
벌몬&3가 (VONS 뒷편)

1시 사기 피해를 막으세요!

의료, 소비자, 부동산 관련 사기 예방법 및 대처법 알아두기
Los Angeles District 검사 Natalie Adomian, Steve Wang, June Miyagishima

3시 민사 소송 기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신가요?
법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APABA 변호사: Elvis Tran

2시 15분 세입자 권리 알아두기

보증금 반환, 거주 환경 기준, 임대인 과롭함, 퇴거 통보 등
AJSOCAL 변호사: 안민수

4시 가정법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 가정폭력
집근금지령, 이혼, 양육권 등 다양한 법을 안내
AJSOCAL 변호사: Lucy Kim

무료 커뮤니티 이벤트

법률 클리닉

시민권, 가족법, 주택, 건강 서비스, 유인장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와 1:1 무료 법률 상담!
위임장 등 법률 문서 작성도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리소스 페어

공공기관과 커뮤니티단체들이 준비한 유용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각종 서비스 연결은 물론 Calfresh, MediCal 등 복지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워크샵

한국어로 진행
법적 권리에 대해 배우고 법률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세요.
Q&A 세션에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제: 민사소송의 기본, 주거권, 가정법, 사기 및 스캠 예방

1:1 법률 상담은 사전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권

시민권 신청, N-400 시민권 신청서 I-912 수수료 면제 신청

가정법 노인 학대&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이혼 및 친자 관계 소송, 양육권 및 면접권

주거관련

세입자 권리: 거주 환경 문제, 임대인 과롭함, 세입자 분쟁, 퇴거 방지, 보증금 반환

노동 및 고용

입금 분쟁, 직장 내 차별 부당 해고

건강 지원

건강보험 신청, 메디칼/카이어드 캘리포니아, 자격 요건 안내

유언 및 상속 계획

위임장, 사전 의료 지시서

민사 소송

아시안 차별 방지 | 주거 보호 이민 및 시민권 | 가정법·가정폭력 | 건강 지원

SCAN ME



사전 예약 / 문의

(800)867-3640 한국어 (Korean)
e-mail: hp@ajsocal.org

상담을 예약하려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공동 주최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아시안 정의 진흥 협회

로스앤젤레스한인회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충격’ 캄보디아 사태… “위기 처한 해외 한국인 구조 절실”

한인구조단, 해외 체류 한국인 전체로 구조 활동 넓혀

지난해 과테말라에서도 구출했지

만 끝내 사망

2023년 후반기부터 캄보디아

서 구조 요청

한인회장 “불법체류 관련

사건·사고들 빈번”

필리핀 구조자 “휴대폰 사업?

갔더니 사기”

권태일 이사장 “누구든 해외

체류 가능성”

그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활동해 온 한인구조단(이사장·대표단장 권태일 목사)이 이제 해외 한인뿐 아니라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힌다.

한인구조단은 이 같이 달라진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함께하는 사랑밭 대강당에서 마련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가 국가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한인구조단 설명회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사장 겸 대표단장인 권태일 목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도 그 동안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난해 과테말라에서도 감금을 당



한인구조단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 한국인을 구출했지만 끝내 사망했다는 권 목사는 “이런 문제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보도도 안 된다. 한국인이 실종되어 버리면 끝”이라며 “(해외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했다.

한인구조단 이정숙 회장은 구조단이 캄보디아에서 취업사를 당한 한국 청년들을 구조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주로 캄보디아에서 고수의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들을 현지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불법 콜센터 등에 강제로 가담하게 만드는 인신매매형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금해 폭행·고문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며 “그들 중 일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구조단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했다.

이에 구조단이 이들의 신분 보호 및 귀국을 지원했다고 한다. 지난 2023년 후반기부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본격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건 2024년부터인데, 한 달에 약 20~30여 건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자료에는 캄보디아한인회 정명규 회장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김 회장은 “불법체류와 관련된 사

건·사고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때로는 저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구조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구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약 4년 전 필리핀에서 구조돼 한국에 왔다는 조성구 씨는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필리핀에) 들어가서 보니 다 사기였다. 앞이 캄캄했다. 그 곳에서 식당을 하시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일했다. 그러다 구조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배는 응답받는 복의 통로…

참 되고 진실하게 드려야”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서울 강서구 복음화 연합대성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담임 편재영 목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첫날 저녁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성복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했다.

편재영 목사(성석교회)의 사회로 김익배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기도와 사회자인 편 목사

의 성경봉독, 여성강사단장인 손보라 목사의 특송 후 단에 오른 이태희 목사는 ‘참 예배’(요한복음 4:23~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 받는 복의 통로가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를 바로 드리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예배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

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닌 우리 탓”이라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참 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예배는 ‘참 되게’ 드려야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이렇게 ‘참 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영혼 깊은 곳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 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태희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진실함이 없는 예배는 가짜다. 참 예배는 얼마나 열심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에 있다”며 “예배를 함부러 드려선 안 된다. 예배 한 번에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받고 고침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연합대성회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서울권 교회의 영적 준비와

연합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202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이자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를 중심으로 ‘8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의 품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회개·성령·전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쿠쿠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 구매, AVS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집 리버스 모기지를 할까요, 집을 팔아서 어뉴이티를 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72세 미스터 윤입니다. 제가 가진 제품을 하면서 미국에서 살아온 게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땀 하나 있는데 다 키우고 본인이 앞 가림해서 잘 살고 있고, 이제는 저 저 이렇게 둘이서만 살면 되는데, 저희가 소셜로 받는 돈이 겨우 3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 한해 있는 것이 지금 모기지가 이제 6만불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재 시세는 56만불이라고 합니다. 제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항상 골프해서 걱정인데 보험료 때문에 이 3400불 정도는 사실 부족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교회에 인들을 통해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근히 사는 것 이 안쓰러웠는지 딸은 집 하나 남겨줄 생각까지 맡고 저희더러 다 쓰라고 하는데 56만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교회에서 지인 분이 이런 경우 리버스 모기지를 해서 집에서 돈을 꺼내 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는 사람은 최근에 모빌홈을 샀는데 8만 2천불이었고 나머지는 어뉴이티를 가입해서 은퇴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생각 중입니다. 문선영씨 생각에는 저희 상황에서 리버스 모기지로 할 때와 어뉴이티로 할 때를 차세히 비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명 해 주시면 제가 문선영씨를 믿고 판단을 내려 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듣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생님, 미국에서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듣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

선영입니다. 윤선생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손님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집 한채 가지고 은퇴를 하는 데 과연 집을 어떻게 은퇴로 활용 할 것인가로 말이지요. 일단 리버스 모기지와 어뉴이티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아시아시피 내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모기지를 한 은행이 집의 소유주가 되어 오히려 집 주인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지요. 여기에는 당연히 리버스 모기지 보험료와 리버스 모기지의 이자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제가 대략 정말 대략 계산을 해 보면 72세 나이이시니 보통 집 가치의 약 42%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56만불 집에서 약 2십3만5천불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6만불 남은 모기지를 갖고 나면 7만5천불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20년 정도 나눠서 평생 찾아 쓰고 여기에 리버스 모기지 이자율을 6% 정도 계산하면 매달 윤선생님에게는 약 900불에서 1100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20년 정도를 쓰고서 평생 찾아서 이제 집에 남아 있는 돈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가 이 집을 받고 싶다면 모기지 대출금 23만5천불을 갚으면 그때는 집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리버스 모기지는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 현재 집을 팔게 된다면 56만불에 기존 모기지 6만불을 제하고, 여기에 판매 비용 중개 수수료등

약 6%를 가정해서 33,600불 정도가 발생하니까 56만불에서 6만불을 빼고 5십만불에서 비용 3,3600불을 빼면 실제 한 \$4십6만6,400불 정도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에서 10만불 정도 모빌 하우스 구매와 이사 비용 등을 제하면 \$366,400불 정도가 남게 될 것이고 이 돈 중에서 6만천불 정도는 비상시 대비 은행에 넣고 30만불만 어뉴이티에 넣어서 100세까지 받는다 해도 윤선생님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한달에 2,500불 정도가 지급됩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 사느냐,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느냐의 차이를 고려하고도 결국은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리버스 모기지는 6% 이자율을 내고 받는 돈으로 한달에 1100불 정도, 어뉴이티는 오히려 7% 정도 이자를 받아서 한달에 2500불 정도를 받아 쓰는 것而已. 윤선생님 이제 비교가 되시죠? 디 구체적인 상담과 계산 등을 다시 연락을 하면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한 넘버가 나오는지 비교도 해드리고, 풀랜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리버스 모기지와 어뉴이티 설명할 때 표로 보기 쉽게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세미나
지금 준비하시면
“65세 한달에 8,000불
은퇴 플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월)
저녁 7시
3435 Wilshire Blvd. 14FL
Los Angeles, CA 90010

참가문의 : 626-827-9599

\$560,000 × 42% ≈ \$235,000
기존 모기지 상환
\$235,000-\$60,000 = \$175,000 사용 가능
월 지급액 (평생)
이 \$175,000를 “평생 나눠 받기”
로 계산하면,
→ 72세 기준 기대수명 약 15~20년 + 이자율 6% 고려 시
→ 매달 약 \$900 ~ \$1,100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어뉴이티
56만불 집 판매-6% 수수료 33,600
= \$526,400
526,400-6만불 모기지 = \$466,400
\$466,400-모빌하우스 구매와 기
타 비용 100,000 = \$366,400
\$366,400 - \$66,400 비상금 =
\$300,000 어뉴이티
매달 약 \$2,500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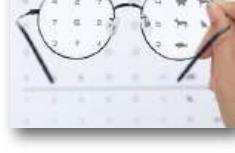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텔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SINCE 1975
귀생당
KISEIDO U.S.A., Inc.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